

시론

4월의 노란 리본을 어루만지며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봄날 오후에 도시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어느 한 장면에서 문득 걸음을 멈출 때가 있다. 성격상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늘 펄펄 걷는 버릇이지만, 흥미로운 발견으로 인해 삶의 위안을 얻는 날이 있다.

일반 주택가에 자리 잡은 사무실 덕분에 한적한 골목을 자주 왕래한다. 단순한 일의 반복에서 오는 피로함을 떨쳐내는 데에는 잠깐의 산책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오히려 즐기는 편이다. 주로 두 골목을 걷지만, 가족의 형태와 크기를 통해 주인의 생활을 어렵으로 짐작하기도 한다. 운이 좋을 날은 막 때문 밖으로 조심히 걸음을 내딛는 주인을 만날 때도 있다.

살짝 가파른 길 아래에는 제법 위용을 뽐내는 집이 한 채 있고 담장은 담쟁이넝쿨이 사사쉴쉴 붙들고 있어서 운치 있게 보인다.

집주인은 80대 중반을 넘긴 홀로 사는 할머니인데, 어느 날 작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 넝쿨 줄기를 손질하던 중 양손 가위를 떨어뜨려서 올려준 적이 있다. 허리가 बे지미 상자 손잡이처럼 휘어서 위태위태하여도 쉬이 내려오지 않는다.

길바닥엔 잘린 넝쿨 줄기가 수북하고 담장

은 시골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처럼 시원해 보인다.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아들 하나뿐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객지에 나가 평생 조각가로 산다고 한다.

예술가는 쓸쓸하고 외롭다지만, 오히려 그 난처함을 즐기는 것인지도 모른다든 생각에 입술이 으르러들었다.

한 집 건너 양철지붕의 고요한 집은 살구 꽃과 철 이쁜 연분홍빛 장미꽃이 피었지만, 담장 밖 여기저기에 꽃잎이 쌓였다.

흰 살구 꽃잎은 바람에 쓸려 두 골목이 만나는 귀퉁이 저만큼 박혀서 처량한 행인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 같다.

이 집은 노부부가 사는데 할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 입원 중이라 할아버지 혼자 계신다. 알루미늄 대문 여닫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걸로 보아서 바깥출입이 여의치 못한 것이다.

연분홍 장미꽃잎만 행인들에게 무수히 짓밟혀 검은 길에 잔혹한 흥터가 생겼다. 비라도 내릴라치면 저 꽃잎들이 바닥에 바싹 들러붙어 추레한 모습이 될 텐데, 그럼 차라리 안 보는 것만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왜 이리 무고한 사람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다.

두 갈래 길이 만나서 원편으로 꺾여지는 길가에는 길보다 조금 낮은 마당 깊은 작은 집이 있다. 이 집의 부부는 중년의 끝을 달려가거나 장년의 초행길에 들어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한 번은 부부가 대문을 열고 길 위로 올라

서는데 서로 말도 없이 남편은 차에 오르고 부인은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유유히 사라진 걸 보았다.

잘 다녀와요, 저녁에 봐요. 바록 상투적일 지언정 보편적으로 이런 대화가 대중 오가는 법 아닌가, 생각할 때 그 집의 한 그루 동백나무가 불현듯 눈에 들어왔다.

담장 위의 만개한 붉은 꽃들이 그 집의 조촐함과 어울려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 듯 반가워할 때, 순간 꽃 한 송이가 맥없이 길가로 툭 떨어져서 놀란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아, 그런데 이게 뭐람. 길보다 한 뼘 정도 높은 턱 위에 붉은 꽃잎들이 수놓듯 놓여 있어서 희한했다. 이걸 낙화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손길이 가닿은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그 주인의 심성이 궁금해졌다.

꽃잎을 하나하나 일부러 따서 예쁘게 진열해놓을 때의 그 여주인의 즐거움과 또 행인들이 오가며 어머니, 이런 반응을 마당에서 듣고 흥겨워할 때의 그 여주인의 신난 표정을 떠올리니 필자의 입가에 미소가 들고 양 볼의 보조개가 되살아난 듯했다.

자기의 즐거움이 타인에게로 가서 함께 즐거워진다면 설령 벚꽃이 진들 무슨 소용이라. 지난주에 경주 벚꽃놀이에 동참했을 때 그 휘날리는 흰 꽃잎들 속에서 하하하 웃던 청춘들의 흰 치아가 몹시 행복해 보였다.

옛적에는 올해의 첫 소쩍새 울음소리를 듣고 4월의 노란 리본을 어루만졌다.

社說

완도 화재 현장 소방관 희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지난 휴일 오전 참극이 발생했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진압을 위해 내부로 진입한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이 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동향특별시장 결선투표에 진출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도 당일 일정을 취소한 뒤 유가족과 동료 대원들을 위로한 바 있다. 순직한 대원들은 완도구조대 소속 40대 소방위와 해남소방서 산하 북평지역대원 30대 소방사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성실한 아버지고, 올해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예비신랑으로 안타까움을 샀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은 화염 속으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든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유증거 폭발로 갑작스레 확산한 불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에폭시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건물 일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취약했으나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당국은 화재 원인과 소방관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각종 재난 현상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생명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우선적인 가치다.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이 대통령의 신신당부야 바로 그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상응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돼 많이 개선했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전남도지사장으로 오늘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영결식이 치러진다. 육조근정훈장이 추서됐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소방청은 유가족 지원과 재발 예방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공약이행 최우수 평가 광주 자치구 의미있는 기록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역 단위로 공약 완료율을 분석했더니, 광주 지역은 88.89%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에 이어 서울 83.22%, 대전 78.87%, 대구 76.32%, 울산 75.75%, 부산 71.25%, 인천 61.88%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민선8기 4년차 공약이행 완료율은 70.42%로 민선 7기(71.72%)보다 1.31%p 낮아졌다. 광역시 단위로는 76.82%였다. 광역도는 67.81%로 차이가 현저했다. 2025년 목표달성률은 93.40%로 확인됐다. 광주의 공약이행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43개 중에 완료 67개, 이행후 계속 추진 149개, 정상추진 26개, 일부추진 1개로 나타났다. 전체 재정 확보율은 103.24%, 전체 재정 집행률은 79.83%에 달했다.

메니페스토본부의 평가는 공약이행률(100점), 2025년 목표달성(10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일치도(Pass/Fail)였고 각

항목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합산, 점수를 매겼다. 이에 따라 6개(SA·A·B·C·D·F)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광주 5개 자치구는 모두 90점을 넘었다. 남구가 지역 내 자치구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SA 최우수 등급에 올랐고, 동구는 7년 연속, 서·북구는 4년 연속 수상이란 의미있는 기록을 세웠다.

자치구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한 결과라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공약 사업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 물론 행정기관의 분발이 있었지만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큰 몫을 담당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민선8기 공약 모두가 차질 없이 마무리돼야 하겠다.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 제감하도록 잘 완수하길 바란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뢰를 두텁게 만들기도 쉽지 않으나 한 번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어떤 평가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책임행정이란 그런 것이다.

기고

광주·전남, 지금이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다



안선영 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실장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총과 탱크가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로 싸우는 산업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은 아예 전쟁에 서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도권은 더 빨라지고, 지방은 더 늦어진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균형발전’을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해 자기 위안에 가깝다. 이제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광주·전남의 미래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답은 단순하다. ‘크게 바꾸는 것’이다.

광주 균형발전 이전 부지, 여의도 면적의 약 3배 달하는 82㎢(248만 평), 이 땅을 또 하나의 산업단지로 채운다면 결과는 뻔하다. 기업 몇 개 들어오고, 몇 년 지나면 경쟁력은 사라진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수십 번 반복

해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 기술, 도시, 관광을 하나로 묶는 ‘초융합 테크노폴리스’. 이것이 답이다. 핵심은 기술 주권이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와 AI를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가 따라가는 구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광(光) 컴퓨팅, 바로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력 소모는 줄이고, 처리 속도는 높이는 이 기술은 AI 시대의 게임체인저다.

광주·전남이 이 분야의 전주기 생태계를 선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청 도시’가 아니다. 기술을 만드는 도시, 시장을 주도하는 도시가 된다.

여기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결합해야 한다.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가장 강력한 산업 기회다. 광기술과 AI를 결합한 조정밀 의료 산업, 이것이 바로 광주가 선택해야 할 다음 먹거리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람과 돈은 산업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곳에 가고 싶다’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테마파크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다. 도시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디즈니랜드 하나가 도시를 바꾼 사례는 세계 곳곳에 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제는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다.

재원 문제가 핑계일 뿐이다.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고, 민관 합동 개발을 추진하면 10조 원 이상의 자원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결단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또 하나의 평범한 산업단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것인가.

광주·전남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도 머뭇거리면, 다음 기회는 없다.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사라지고, 도시는 늙어간다. 이걸 과장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작게 바꾸는 시대는 끝났다.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머물 것 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독자투고

전동킥보드, ‘편리함’ 뒤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김성철

인도 위를 빠르게 질주하고, 사용 후 아무 곳이나 방치되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이미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이면의 무질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여기에 인도와 도로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기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때로는 사고로 이어진다. 편리함을 앞세운 이용이 결국 타인의 불편과 위협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꾸준히 증가하며 연간 수십만 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단속 건수 증가와 달리 사고와 인명피해는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법은 보다 분명하다. 우선 지자체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인도 등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과 보관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전용 주차 공간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운영업체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면허 확인 등 기본적인 이용자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지정된 구역 외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 관리 책임

을 이용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이용자 인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PM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법적으로 ‘차’에 해당한다. 사고 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보호자의 지도 또한 중요하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보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용 환경 변화에 맞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때 현장의 혼선도 줄어들 수 있다.

PM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됐다. 필요한 것은 배제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이다. ‘편리함’이 ‘무질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기준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할 때다.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30대 이하 당첨 비율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일반분양 단지 기준)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가운데 6명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일반분양 단지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체 청약 당첨자 7천365명 중 30대 이하자는 61.2%(4천507명)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20년 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 이하의 당첨 비율은 최근 6년간 1-2월 기준으로 46.5-58.7%에 머물렀다.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2023년 52.0%, 2024년 51.8%, 지난해 54.3% 등으로 60%를 넘지 못했다. 이는 누적된 정책 효과와 소형 면적 공급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2024년 3월 도입된 ‘신생아 우선 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내 출산 가구 우선 배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며 정책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1-2월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총 1천119가구로, 전체(3천917가구)의 28.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11.0%)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아진 수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